

중국 상하이시, 마스크 3만장 지원

전북도,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족에 우선 배부·취약계층에도

전북도의 우호지역인 중국 상하이시가 보내온 마스크가 도내 코로나19 자가격리자와 중증장애인 등 외부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전달돼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게 된다.

도는 지난 3일 중국 상하이시가 직입자사를 통해 전북에 지원한 마스크 3만 장을 도내 코로나19 자가격리자와 가족에게 우선 배부하고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도 전달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마스크를 각 시군에 배부했으며, 신속하고 안전한 배부를 위해 시군별 담당 공무원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전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마스크 지원 계획은 외부활동

이 제한된 자가격리자와 가족, 중증장애인 등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이 큰 이들의 건강관리를 돕고 심리적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결정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상하이시가 마음을 담아 보내온 귀한 마스크인 만큼 더 의미있게 쓰시길 바란다"며 "외부활동이 제한돼 마스크 확보가 더 어려운 자가격리자와 중증장애인, 홀로노인 등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상하이시가 전북에 마스크를 보내온 것은 중국 내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1월 30일 해외 우호지역지역 중 처음으로 송하진 도지사가 상하이시장에게 위로서한을 보내 아픔을 달래고

격려한 것에 대한 답례 의미가 크다. 당시 상하이시 여러 언론을 통해 전북도가 보낸 우정을 비중있게 다룬 바 있다.

한 달 전의 호의를 기억하고 있는 상하이 리치양 당서기(서열 1위)는 전북을 비롯한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을 보고 마스크 전달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3일에는 상하이에 거주하는 전북도민에게 별도로 마스크 3천장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전북도와 중국 상하이시는 2005년 우호결연을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해오면서 상호 신뢰와 우정을 다져왔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

개학연기 등 대비 27일까지 정부지원 확대

전북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 등에 대비해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가 과전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이용부담을 줄인다고 5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가정, 야근 또는 아동 질병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임시보육, 놀이활동 등 가정에서 필요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치는 특히 가족돌봄휴가,

시설에서의 긴급보육, 돌봄교실 등도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한 부모들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확대 대상은 그간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서비스를 이용해왔던 기존 이용자와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개학연기 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규 이용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지원확대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로

정부지원 확대가 적용되는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지원 내용은 서비스 이용요금(9,890원) 중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의 0~85%를 40~9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해 지원하며, 이용자 부담은 평균 37.6% 완화된다.

단, 해당 지원 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하며,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음압이송용 들것 24대 추가 구매

코로나19 확산 저지 위해 재난관리기금 3억1천만원 활용

전북도는 지난 4일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음압이송용 들것 24대를 추가 구매했다고 5일 밝혔다.

추가 배치한 음압이송용 들것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재난

관리기금(긴급대응비) 3억1천만 원을 활용하여 구매한 것으로 음압이송용 들것 24대를 비롯해 코로나19 전담구급대 감염예방을 위한 장갑 및 소독제 등 대원 보호장비가 포함됐다.

이로써 소방본부는 음압이송용 들것을 기존 13대에서 24대를 추가 구매하

여 총 37대를 보유하게 됐다.

음압 이송용 들것은 환자 이송 시에 들것에서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할 때 공기 속에 묻어나는 병원균 등을 공기 필터로 여과해 외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운반장비이다.

소방본부는 음압이송용 들것 14대를 협의의 거쳐 시·군 보건소에 재배치하여 확진자 및 의심환자 이송지원을 도울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

도, 보건복지 통합경로당 확대 운영

전북도는 농어촌지역 돌봄, 일자리, 여가문화 서비스 등 맞춤형 프로그램 등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통합경로당 추가 선정에 들어갔다.

2019년 10개의 보건복지통합경로당

을 선정하여 운영하였고 2020년에는 사업확대를 위해 프로그램 조정 등을 통해 당초 10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노인복지관이 인근에 없는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거점 경로

당 역할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정하여 일차리와 돌봄, 프로그램, 간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평소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애정을 갖고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등을 위한 경로당을 시군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통합경로당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백신치료·원격의료'... 코로나19 관련 국가R&D 현황 한눈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NIS에 코로나19 관련 국가R&D 현황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상황해제 시까지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NIS는 사업, 과제, 인력, 성과 등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서비스하는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 포털이다. 이번 서비스는 KISTI

가 지속 가능한 국가R&D 혁신을 지원하고자 지난해부터 추진한 'NIS 5.0 기본 계획'에 따라 고도화된 큐레이션 서비스의 일환이다.

국가적 이슈인 코로나19 관련해 바이러스 감염병과 관련한 국가R&D 정보를 NIS 메인 홈페이지 중앙의 스페셜 이슈 코너에서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바이러스 진단, 백신치료, 원격의료, 역학

조사, 인공지능 의사, 스마트헬스 등 바이러스 감염병과 관련된 과제, 연구자, 특허, 논문 등의 국가R&D 현황을 각 주제별로 살펴볼 수 있다.

NIS는 앞으로도 국가적인 이슈 발생 시 스페셜 이슈 코너를 개설하여 해당 이슈와 관련되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국가R&D 현황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뉴시스



전북도가 스마트 금융시대에 발맞춰 전북의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손을 맞잡았다.

전북도-한국인터넷진흥원, 업무협약

핀테크 산업 활성화·동반성장 위해 상호 협력키로

전북도가 스마트 금융시대에 발맞춰 전북의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손을 맞잡았다.

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5일 전북도청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핀테크 기업발굴 및 성장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스마트금융 분야 기업지원 및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상호간 주관 프로그램 추천 및 참여 지원, 핀테크 기업에 대한 분야별 자문 및 심사관 참여 등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사항을 정하고, 그 외의 상호협력 가능한 부분들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국제금융도시 생태계 조성 위해 국제금융센터 건립 등 금융산업의 내실을 다지고 있으며, 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을 육성하고자 지난해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 6개 기업을 발굴·지원했으며, 올해는 사업을 확대하여 10개 기업을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금융 신산업 분야 벤처기업에 보육공간 제공, 경영활성화 자금지원, 역량강화 교육 및 맞춤형 멘토링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도내 핀테크 지원사업이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도는 인터넷·모바일 금융시대를 맞아 금융에 기술을 더한 핀테크 산업을 집중 육성해 스마트 금융산업

의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국제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북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핀테크 보안성 강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스마트금융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해 전북에 거점을 두고 있는 유망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서 핀테크 산업 육성에 든든한 지원군이 다"면서, "진흥원과 협력을 통해 전북도 핀테크 산업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전라북도도 금융도시로의 경쟁력을 갖추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